

〈열린 지성〉 창간에 부쳐 -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



임 현 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장

■ 요즘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교육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적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초·중·고등 교육의 개선이 화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중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 개혁처럼 어려운 과제도 없다고 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아래 대학의 이념과 목표를 둘러싸고 혼돈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탐구의 전당이라는 예전의 '지성적 대학관' 과 산업인력의 양성소라는 새로운 '실용적 대학관' 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미래를 향해 지식을 축적할 것을 역설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 써먹을 인력을 길러달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입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써먹을 인력 양성에 매달리다 보면 진리탐구가 어렵게 되고, 미래를 향한 지식축적에 힘쓰다 보면 인력양성이 어렵게 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입장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는 대학교육의 목적이 시민적 자질을 갖춘 미래창발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소견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뿐만 아니라 지구적 표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10년을 보고, 인재를 키우려면 100년을 보고, 문화를 만들려면 1000년을 보라”는 동양의 지혜가 가르치듯 백년대계의 이상이 없으면 대학교육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작금 정부 주도 아래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사립대학들이 근시안적 협애한 이해관계를 넘어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안목과 혜안을 나눠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교육혁신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상의 개혁을 줄곧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국 대학, 작게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사제도의 개편과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론 것보다 이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학생을 무슨 방법으로 뽑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서울대 학생상(像)에 관한 대학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모두의 중지가 모아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을 교육목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넓은 교양과 깊은 전공을 연계한 기초교육을 통해 편협한 교양주의와 과도한 전공주의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을 가로지르는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학사 교육을 바탕으로 전인적 교육을 위한 자아개발, 사회봉사, 체험학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문화권으로 이뤄진 세계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이해를 넓히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해결 능력을 키우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의 방향, 범위, 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학내외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기초교육원 소식지의 창간을 계기로 기초교육에 관심을 지닌 모든 학생, 직원, 교수님들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